

# 변화산상의 예수님

## 그리스도의 산상변화

사실상 17장은 16장 28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많은 질문들이 제기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다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심에 대하여, 그리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틀린 예언을 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죽었고 아직도 예수님은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 잘못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6:28에서 멈추지 않고 17장과 연결하여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17:1-3)

16:28은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었고(가이사라 빌립보는 다메섹 남서쪽 80Km, 그리고 헤르몬 산은 다메섹 남서쪽 48Km쯤에 위치했음-역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서 오르셨던 산은 헤르몬 산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들을 선정하는 일에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직접 관여하여 그 대부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녀가 어느 장소에 서서 ‘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동굴입에 틀림없다. 여기가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케 될 것임을 말했던 장소이다. 난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면 그대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스러운 장소, 즉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장소들을 결정하여 그곳들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씀을 잘 알지 못했고 또 관광적 편리함을 고려해서 이 변화산의 장소를 이스라엘 한복판, 갈릴리 바다에 가까운 므깃도 지역에 위치한 다불(Tabor) 산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변형되셨던 장소다’라고 말하면서 이 다불 산 꼭대기에 큰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기로 무리를 먹이신 장소도 벳새다 근처의 갈릴리 호수 북단 근방이었지만 당시 그 곳으로 통하는 길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관광객들이 손쉽게 갈 수 있는 훨씬 더 아래쪽 도시 막달라 근처에 오병이기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옛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 안에 예수님이 못박히신 곳을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성벽 문밖으로 데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박하신 장소에는 동산이 있었고 그 안에 당시 무덤으로 쓰였던 새로 판 동굴이 있었다고 기록되었음에도 그들은 다마스쿠스 문 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랍든 이런 식으로 그들은 관광적 편리함을 위해 예수님과 관련된 성스러운 장소들을 사실과 다르게 선정하였습니다. 사실 다불 산은 그리 높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지역에 있는 길보아(Gilboa) 산보다도 높지 않았습니다. 헤르몬 산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무려 2,743m나 되는 산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다불 산까지 6일은 족히 될 길을 서둘러 내려와 오로지 다불 산 꼭대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시려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잘 맞지 않습니다.

감람산에는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 있다고 하는 세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 다 자신들의 교회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바위 위에 남긴 발자국을 보여주까지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베다니까지 가서서 그곳에서 승천하셨다고 나와 있건만 그들은 그 복음서를 읽지 않았는지 감람산 위에 그런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수난, 곧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시게 될 죽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 율법서나 구약을 의미했던 모세와 선지자 중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던 엘리야,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던 인물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신, 즉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림자에 불과했던 모든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썼을 때보다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통해 그분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던 엘리야 역시 그런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충동적인 성격을 지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17:4)

우리는 때로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 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느끼곤 합니다. 도무지 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말을 하게 됩니다. 충동적인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라고 말했습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17:5)

구약에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구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회막이 완성되어 제물을 드릴 준비가 되자 이 빛난 구름이 온 백성 위에 나타나 여호와와 영광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에게 알려 주고 지성소 안을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또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이 빛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역시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들었고 또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도 들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해 오셨던 바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십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온전하고, 진정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나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17:6-10)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까지 이 일을 전파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구약의 선지서 중 마지막인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말라기 4:5)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여기 한 예언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며 메시아 되심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그분이 구주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것을 숨겨야 한다면 어찌하여 굳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백성들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사역을 먼저 해야 한다고들 합니까”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17:11)

예수님은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그분의 나라를 즉시 세울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까지의 기간이 아주 오랜 세월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은 교회의 일들이 있고난 뒤, 미래에 되어질 부분을 다루면서 11장에서 두 증인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짧은 베옷을 입고 일천 이백 육십 일을 예언하리라…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요한계시록11:3-6). 이처럼 이 증인들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 중 하나는 분명 엘리야일 것이며, 그때에 주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림시의 증인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는 사가랴에게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던 예언이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세례 요한은 태어났고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각처에서 와서 그에게 세례받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자 유대인들 사이에 큰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세례 요한이 어디서 이러한 권세를 받아 일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자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 성경에 오리라고 기록된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앞서 왔던 예표적 엘리야로서의 세례 요한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지 못하고 고난만 받았습니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전에 먼저 올 참된 엘리야는 주님보다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lunatic-KJV)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17:14-15)

간질의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달에 해당되는 헬라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문자적으로 ‘달에게 맞았다’(struck by the moon)라는 뜻입니다(간질에 대한 헬라어의 뜻은 미치다라는 의미로도 쓰임-역주). 그 당시 사람들이 미치게 되는 것은 보름달 아래서 자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미쳤다는 뜻인 루네틱(lunatic)의 루너(lunar)는 라틴어로 달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수백년 이상 지속되어온 생각으로 정신병은 달과 관련이 있다는 믿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음력 보름달을 전후하여 모든 정신병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더욱 그 증세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몽든 여기 한 아버지가 제 정신이 아닌, 즉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17:16)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고 파송한 후에 “그들이 기뻐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그 후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후에 그 영적 체험의 정점 너머의 내리막 길,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경험 후에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은 즉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영광스러운 이곳을 떠나지 않고 여기 있겠습니다’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빼앗으려는 사단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무장해야 합니다. 받은 영적 축복이 아무리 엄청나다 할지라도 사단의 공격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은 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혼란케 하고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오니라”(17:17-18)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환자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꾸짖으심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이 때에 제자들이 중용히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17:19)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지켜본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17:20)

예수님은 간단하게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이 이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컨대, 아버지가 이 소년을 먼저 제자들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은 필경 자기 자신을 과장되게 포장된 어떤 극적인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 힘에 놀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단의 힘과 능력을 대하게 될 때 단순히 그 상황만 보고 위압당해 불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게 됩니다. 사단의 힘에 놀려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도 주목할 만큼 사단의 능력이 엿보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예를 들었듯이 필리핀의 빌러빌 교도소에 보호감금되어 있는 테레사라는 소녀에게 사단이 들어 몸을 물어뜯은 사건입니다. 그녀의 목과 등에, 그리고 몸 전체에 물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부딪혀도 상처가 나지 않는 쿠션 시설을 갖춘 정신병동에 홀로 수감되어 있었고 상처난 곳은 도저히 스스로는 상처를 낼 수 없는 부위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병 전문 의사들이 초빙되어 와서 치료에 나섰으나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미국인 선교사를 데려와 치료해 보자고 제안했으며 그때 레스터 서머럴 목사와 밥 맥칼리스터 목사가 이 소녀를 치료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사단은 다시 이 소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 두 선교사들은 소녀가 발작을 하며 몸에 붉게 물린 자국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장면을 보았다면 사단의 끔찍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선교사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그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테레사가 낫게 된 후 그 소녀는 이 두 선교사들에게 그 악령이 어떻게 그녀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는지 말했습니다. 어떤 남자든지 그녀에게 가까이 접근하기만 하면 미칠 정도로 질투를 하면서 이 악령들이 그녀를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그녀에게 이 악령들이 다시 돌아와 그녀를 다시 속박하려고 할터인데,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승리에 의지하여 싸워 이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이 악령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소녀는 다시 발작하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완전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괴력 앞에 힘을 잃고 그 악마적인 행위로 인해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사단을 능히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힘에 대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흑암의 모든 세력을 파할 능력을 우리들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참으로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계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17:21-KJV)고 하셨습니다.

## 두번째 수난예고와 세금을 지불하시는 예수님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17:22-23)

예수님은 다시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르는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지상에서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은 갈릴리에 있으나 곧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여행하게 되고 십자가를 질 것이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못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부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당시에는 그 충격으로 인해 들뜬 상태가 되어버린 채 그 소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무척 당황이 되고 놀라서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은 제대로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 삼 일이 되었을 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그분을 찾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가벼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뉘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17:24 -27)

세금을 낼 필요가 있었을 때 예수님은 '가서 나무 밑을 파 보라 그러면 돈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어부가 지렁이를 찾기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땅파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늘 하던 일, 즉 낚시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입니다.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깨 위에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워주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녀들을 위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 좋은 것들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 드리며 전적으로 헌신을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